

미국에서는 진실 추구를 위한 방법론 논쟁이 한창이다.
‘전 세계 언론인은 단지 소속 부대만 구분될 뿐
모두 진실의 군대에서 근무하는 병사’라는 말에 기대어 볼 때,
이 논쟁을 한국 언론의 상황에 적용해 살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일 수 있다.
우리나라 언론에서 객관성과 투명성은
진실 추구를 위한 실천 이념으로 작동하고 있는가?
두 필자의 글을 통해 살펴보자. 편집자 주



객관성은 어떻게 저널리즘의 기본 가치가 됐나 백년 전 언론 전문직 대변 논리로 등장... 한국 기자의 새로운 정체성 고민할 때

이준웅 /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객관주의에 대한 의심과 비판

객관성이란 일반적으로 객체, 즉 사물과 사건을 준거로 삼아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뜻한다. 주체의 의도와 관점에 따라 사물과 사건에 접근한다는 주관성에 대립하는 개념이다. 언론의 객관성도 객관성의 일반적 함의를 포함하지만, 더욱 실천적인 관점에서 ‘기자는 자신의 의견과 사실에 대한 진술을 구분해서 제시해야 한다’는 규범을 담는다. 기자들이 의견과 사실 주장을 분리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이 두 가지를 함부로 섞어서 보도하지 말라고 명령한다.

언론의 객관성 개념을 중심으로 한 일련의 신념과 명령의 집합을 언론의 객관주의라 한다. 그것은 사건을 관찰해서 보고하듯 기사를 쓰고, 요점을 두괄식으로 제시하고, 인용 구절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는 등 규범을 포함하는데, 요체는 역시 주관을 배제하고 사실을 취재해서 보도해야 한다는 데 있다. 초연하게 사건에 접근해야 하고, 과학적 방법론에 따라 검토하고, 건조한 문체로 기사를 써야 한다는 식의 격률들은 모두 기

자의 주관성 배제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¹⁾

그러나 언론의 객관주의는 미국 언론의 주요 규범으로 확립돼 인정받을 때조차 의심받지 않았던 적이 별로 없다. 터크만(Tuchman, 1972)은 일찍이 1960년대 말 미국 언론을 관찰해서, 언론의 객관성이란 마감에 쫓기고 명예훼손 소송에 시달리는 기자들이 자신의 직역을 보호하기 위해 활용하는 일종의 ‘전략적 의례(strategic rituals)’라고 했다. 뉴스가 사실 주장을 담고 있어서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기자들이 취재와 보도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특정 행위를 하기 때문

1) 의견과 사실 주장의 구분이 언론 객관성의 요체라는 데 학자들이 대체로 동의하지만, 논란이 없는 것도 아니다. 가장 혼란스러운 점은 역시 불편부당성, 균형성, 공정성 등과 같은 ‘올바름’에 대한 요구가 언론의 객관주의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는 것이다(이준웅, 2005; 이준웅·김경모, 2010). 언론인은 물론 언론학자 중에서도 편향, 불균형, 불공정 등의 문제가 기자의 주관적인 의견이 개입한 결과로 발생하기에 일종의 객관성 위반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다(Maras, 2013). 그러나 객관성과 공정성을 혼동하면 곤란하다(Lichtenberg, 1991). 사실에 대한 정확한 진술만을 제시하면서도 얼마든지 편향적일 수 있고 불공정할 수 있다. 한쪽 편만 취재해서 쓰거나, 권력자가 제시한 자료만 인용해서 쓰면 그렇게 된다. 혹은 반대로 사건 당사자 모두의 입장을 정당하게 반영함으로써 공정하게 쓰면서도 동시에 소설에 가까운 허구로 쓰는 일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요컨대, ‘올바름’에 대한 요구와 ‘사실에 대한 주장’은 구분 가능하며, 따라서 별도로 작동하는 규범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한 접근은 근본적으로 진리와 정의 간의 관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이 둘을 구분 가능하고 또한 구별해야 마땅하다는 견해를 반박하기 위해서는 소크라테스의 지적 할일설 정도의 비상한 논변이 필요하다.



언론의 객관주의는 미국 언론에 전문직주의가 확립되는 과정에서 전문직의 규범으로 자리 잡았다. ©연합뉴스

에 ‘객관적이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행위는 △해석상의 갈등이 있음을 제시하고, △‘진실’이라 인정되면 증거로 사용하고, △사려 깊게 인용문을 작성하며, △도식적인 구성에 따라 기사를 작성하고, △분석과 사실 기사를 분리해서 편집하는 일들이다. 이런 일들은 언론사 조직 내적인 실수를 통제하기 위해, 그리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비판을 막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발전한 관행적 절차들이다.

1980년대 언론학에 비판적 관점이 등장하면서, 언론의 객관성은 자유주의 언론의 이데올로기적 도구로 간주되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해킷(Hackett, 1984)은 언론의 객관성을 일종의 ‘수사적 장치’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단 그는 뉴스 내용이 현실을 객관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는 전제 자체가 언어와 이념의 작용에 대한 순진한 이해에 기초한다고 비판했다. 사건을 보도할 때 기자의 관점이 없는 글쓰기가 가능하리라는 전제가 무리라는 것이다. 또한 기자가 편향된 정견을 갖거나 언론사가 외부 압력에 굴복해서 뉴스 내용이 왜곡되는 것만이 아니라고 경고했다. 언론이 객관적이고 불편부당하게 보이기 위해 노력하는 일 자체가 현실의 권력 관계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맥락에서, 실리(Schiller, 1981)는 객관성이 일종의 ‘비가시적인 틀(invisible frame)’로 작동한다

고 비판했다. 뉴스가 실은 언론인이 전하고 싶은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객관성이란 틀에 넣어서 제시함으로써 이야기가 아닌 것처럼 만드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비판론자들은 객관성을 포함한 언론의 이념이 억압적이고 차별적인 현실 자체를 구조적으로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고 본다.

언론의 객관성에 대한 옹호

언론의 객관성이 언론인의 방어 논리이거나 지배 세력의 이념적 도구라면, 기만적일 뿐이며 따라서 폐기하는 편이 옳지 않겠는가?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고 기여하는 바가 있다는 설득력 있는 주장이 있다. 리히텐버그(Lichtenberg, 1991)는 언론의 객관성을 옹호하기 위해, 그에 대한 가장 강력한 비판들이 내적으로 일관성이 없다는 관찰에서 출발했다. 그는 △언론의 객관성이 불가능하다고 전제하면서 사실 보도를 하지 않는다고 불평할 수 없고, △언론의 객관성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과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함께 제시하면 우습고, △언론이 사실 보도를 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면서 동시에 객관성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하면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서로 연결된 전제를 살피지 않고 무작정 비판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언론의 객관성이 사회적으로 구성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언론은 물론 시민들에게 중요한 이념으로 작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리히텐버그는 주장했다. 모든 규범은 사회적으로 구성되며, 언론의 객관성도 그렇게 만들어진 조건에서, 언론인은 물론 일반 시민이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해서 언론의 객관성이 무의미하거나 무력해지지 않는다고 한다. 규범을 따라야 한다는 압박감은 오히려 사회적 승인과 합의에 따라서 강해지면 강해지지, 약해지지 않는다. 또한 현실적으로 뉴스가 언제나 사실

을 객관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뉴스라면 마땅히 그래야 한다는 신념이 일종의 ‘규제적 원리(regulative principles)’로 작동함으로써 같은 원리를 채택한 사람들이 공통의 인식에 따라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한다. 예컨대, 현실에서 언론이 사실을 왜곡하고 편향적으로 보도한다는 비판을 의미 있게 주고받기 위해서라도, 일정한 인식의 한계 내에서 객관적 인식이 가능하다는 전제를 채택할 수 있다.

언론의 객관성을 옹호하는 가장 강력한 논변은 그것이 언론 지역의 전문직화(professionalization)에 기여한다는 주장이다(Schudson, 1978). 언론인의 독립적인 지역이 전문화되면서 스스로 갖춘 규범 체계를 갖는 한, 그 이념이 무엇이든 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 언론이 사회적 제도로 자리 잡은 것은 18세기 말부터이지만, 직업으로서 언론직이 인쇄업으로 분리되고, 정치인의 앞잡이거나 사업가의 부하 직원이 아닌 독립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인정받기 시작한 일은 19세기 대중지가 등장하면서부터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유력 언론인들은 자신을 독립적인 규범과 행동준칙을 갖춘 전문가로 규정할 필요가 생겼는데, 당대 유행하던 경험주의와 과학주의로부터 객관성 개념을 빌려와 지역의 정체성으로 삼았다고 한다.

1920년대 이후 객관성이란 이념을 내세우면서, 미국의 언론인은 정치 논리에 휘둘리는 선전기관과 차별되고, 상업적이며 사업적인 이해관계를 따르는 장사꾼도 아닌 독자적인 ‘언론의 논리’를 갖춘 전문가라는 자의식을 갖췄다(Waisbord, 2013). 요컨대, 미국 언론인들이 객관성을 언론의 지도 이념으로 수용하는 이유는 그들이 뉴스를 만들면서 실제 사실을 위주로 접근하기 때문이 아니다. 객관성이 언론의 규범으로 확립될 무렵에도, 그 이후에도 미국 기자들이 의견과 사실의 구분을 중심으로 뉴스



**객관성이란 이념을
내세우면서, 1920년대 이후
미국의 언론인은 독자적인
‘언론의 논리’를 갖춘
전문가라는 자의식을 갖췄다.
요컨대, 미국 언론인들이
객관성을 언론의 지도
이념으로 수용하는 이유는
그들이 뉴스를 만들면서
실제 사실을 위주로
접근하기 때문이 아니다.
그보다는 객관성이란 이념을
이용해 언론인이 정부,
정당, 기업, 사회단체 등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규범 체계를
갖추고, 그에 따라 동료와
후배의 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었다.**



를 제작한 것이 아니라는 관찰과 증거는 차고 넘친다. 객관성이 언론의 이념으로 자리 잡은 이유는 이 이념을 이용해서 언론인이 정부, 정당, 기업, 사회단체 등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규범 체계를 갖추고, 그에 따라 동료와 후배의 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언론의 자기 규율 이념과 정체성



미국 언론에 전문직주의가 확립되는 과정에서 객관성이 전문직 규범으로 자리 잡았다는 요점을 이



**우리나라 언론의 사실과
진실에 대한 다짐의
횡수야말로 언론의 집합적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반영하는 듯하다. 기자들은
구체적인 취재 보도 및 제작
활동을 규율하는 규범에 대한
합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도대체 누가 언론인이며, 어떤
특성을 공유하며, 무엇을 위해
일을 하며, 결국 동료 기자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후배에게
무엇을 당부할 수 있고,
결정적으로 시민에게 무엇을
약속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합의하고 있지 못하다.**

해하면, 언론의 객관성에 대한 다음의 몇 가지 관찰들이 언론윤리에 대해 갖는 함의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다른 제도와 마찬가지로 언론도 더욱 장기적인 역사적 관점에서, 그리고 더욱 넓은 이해관계의 맥락에서, 다양한 양식으로 분화하며 진화하면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첫째, 모든 나라의 언론이 객관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언론인들의 글쓰기는 영미권 언론인이 따르는 ‘의견과 사실 주장의 구분’과 다른 방식으로 발전했다. 무엇보다도 유럽에서는 문예적 열망을 지닌 문필가들이 언론에 투신해서 뉴스 논조를 결정했으며(Chalaby, 1996), 결정적으로 유럽의 언론인들이 정치 엘리트와 교류하고 영향력을 주고받으며 이념을 공유하는 가운데 ‘객관성’과 같은 독립적인 이념을 내세울 동기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Schudson, 2001). 언론이 자율적인 전문직으로 자신을 규정하기 위해서 내세우는 이념이 반드시 객관성이어야 할 이유는 없다. 그것은 ‘공적 신뢰’, ‘다양성’, ‘공정성’ 등 이념 중 어떤 것이라도, 또는 어떤 조합이라도 가능하다. 각 국가에서 언론이 제도화하는 역사적 과정과 언론인의 역할에 대한 자기 인식에 따라서 다른 이념이 활용될 뿐이다.

둘째, 시대와 요구에 따라 언론윤리가 진화하는 과정에서 객관성의 함의도 변한다. 미국 언론만 하더라도 △오래된 사상의 자유시장 은유로부터 △사회책임의 윤리, △해석적이며 참여적인 관점, △공동체와 돌봄의 가치 등을 강조하는 윤리를 포섭해 나가면서 객관성을 ‘사실에 대한 숭배’ 이상의 것으로 발전시키고 있다(Ward, 2009). 기자의 의견을 배제하는 기사를 쓰는 일이 오래된 언론 객관성이라면, 검증주의 원리를 도입해서 증거와 추론을 중심으로 기사를 쓰기 시작한 것은 그다음 일이다. 공동체 참여의 원리를 강조해서 더 많은 정보원, 해석, 심지어 시민들의 의견마저 폭넓게 담는 방식으로 ‘사실에 대한 맥락을 강화하는’ 일이 새로운 객관성이 되기도 한다. 디지털 언론 시대에 객관성이란 또한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진화할 수 있다. 영상과 그래픽 등 다중감각 메시지를 통해서 뉴스의 형식을 바꾸고, 통계나 분석 자료를 강화해서 ‘자료기반 기사 쓰기’로 발전할 수도 있다.

셋째, 기자가 주장하는 바와 그가 실제 하는 일을 구분하고, 기자가 하는 일과 언론의 기능을 구분해야 한다. 사실과 진실을 다짐하면서, 온갖 객관주의 기법을 원용하는 기자가 복잡한 현실을 파편화해서 보도할 수 있다. 검증된 사실만 보도한다고 주장하고, 또한 실로 그렇게 뉴스를 제작하면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것을 의도하고 실제 그렇게 분열적으로 작동하는 언론이 얼마든지 있다. 여기에서 요점은 이런 파편화된 보도와 분열적인 기사를 쓰는 언론사가 주장하는 객관성이 모두 구실이고 핑계고,

위선이요 기만이라고만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사실과 진실에 대한 진정한 추구는 그 자체로 감동적일 수 있고, 결과적으로 더 많은 탐구를 만들어 낸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보면 파편, 왜곡, 분열된 언론도 집합적으로 공론장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기여할 수도 있다는 데 주의해야 한다.

우리나라 언론의 객관성



객관성은 우리나라 언론의 지도 이념인가? 얼핏 그렇게 보이기도 한다. 우리 기자들은 사실과 진실에 대한 다짐을 입에 달고 살기 때문이다. 나는 이를 여러 각도에서 검토한 바 있는데, 기자들이 사실을 ‘팩트’라고 부르며 신성한 듯 추존하면서 실체는 담론권력을 추구하는 데 몰두한다거나(이준웅, 2017), ‘사실 충분성의 원리’에 따라 사실에 대한 정확한 보도이기만 하면 다른 윤리적 관심은 소홀히 해도 된다는 식으로 활동한다거나(이준웅, 2019), 결정적으로 정치적 영향력과 사업적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전문적 직역으로 자신을 확립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는 것 등이다(이준웅, 2020).

우리나라 언론의 사실과 진실에 대한 다짐의 횡수야말로 언론의 집합적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반영하는 듯하다. 기자들은 구체적인 취재 보도 및 제작 활동을 규율하는 규범에 대한 합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도대체 누가 언론인이며, 어떤 특성을 공유하며, 무엇을 위해 일을 하며, 결국 동료 기자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후배에게 무엇을 당부할 수 있고, 결정적으로 시민에게 무엇을 약속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합의하고 있지 못하다.

나는 우리 언론인들이 지금 유행하는 외국의 언론 객관주의 논쟁에 주목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봐야 한다고 환기하고 싶다. 해외에서 벌어지는 객관성, 투명성, 공정성, 신뢰 등에 대한 논의를 참조하는 일

은 바람직하지만, 그런 참조가 우리 언론 종사자들의 자기 신뢰의 하락과 직업적 불안에 대해 어떤 함의를 갖는지 먼저 생각해 봐야 한다. 무엇보다 우리나라에서 무엇이 기자와 기자가 아닌 자들을 구분하는지 고민해 봐야 한다. 그리고 이 모든 고민에 집합적 자율성의 원리를 적용해야 한다. 윤리적 주체들이 서로 다짐하는 식으로 형성해야 한다는 뜻이다. 기자가 쓰는 것이 곧 뉴스가 되듯이, 기자들이 결집해 행하는 바가 곧 자율성의 증거가 된다. ■

참고문헌

- 이준웅, <비판적 담론공중의 등장과 언론에 대한 공정성 요구>, 방송문화연구, 17(2), 139-172쪽, 2005.
- 이준웅·김경모, <바람직한 뉴스의 구성조건: 공정성, 타당성, 진정성>, 방송통신연구, 67, 9-44쪽, 2008.
- 이준웅, <가짜 뉴스와 사실확인 보도>, 관훈저널, 143, 33-40쪽, 2017.
- 이준웅, <한국 언론의 도그마: 사실충분성의 원칙>, 언론정보학회 특별세미나 <언론개혁: 취재보도 관행과 저널리즘 원칙의 성찰>, 2019.10.25.
- 이준웅, <반목과 갈등을 넘어 언론의 집단 정체성 같이 고민해야>, 신문과방송, 2020년 2월호, 53-57쪽.
- Chalaby, J. K., <Journalism as an Anglo-American invention: A comparison of the development of French and Anglo-American journalism, 1830s-1920s>, European Journal of Communication, 11(3), pp.303-326, 1996.
- Hackett, R. A., <Decline of a paradigm? Bias and objectivity in news media studies>, Critical Studies in Mass Communication, 3(1), pp.229-259, 1984.
- Lichtenberg, J., <In defense of objectivity>, In J. Curran and M. Gurevitch (eds.), <Mass media and society>, London: Edward Arnold, pp.216-232, 1991.
- Maras, S., <Objectivity in journalism>, London: Polity, 2013.
- Schiller, D., <Objectivity and the news>,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1981.
- Schudson, M., <Discovering the news: A social history of American journalism>, New York: Basic Books, 1978.
- Schudson, M., <The objectivity norm in American journalism>, Journalism, 2(2), pp.149-170, 2001.
- Tuchman, G., <Making News>, New York: The Free Press, 1978.
- Waisbord, S., <Reinventing professionalism: Journalism and news in global perspective>, London: Polity, 2013.
- Ward, S. J. A., <Journalism ethics>, K. Wahl-Jorgensen and T. Hamitzsch, <The handbook of journalism studies>, London: Routledge, pp.295-309, 2009.